



이 글 (Assembly in Brief)은 장로교 뉴스 서비스와 총회 사무국 (OGA)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글: Jerry L. Van Marter, Coordinator, Presbyterian News Service  
 편집: Toya Richards Jackson, Assistant Stated Clerk and Associate for Communications,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디자인: Randy Hobson, Coordinator of Web Services,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사진: Danny Bolin and Michal Whitman  
 기고자: Pat Cole, Bethany Daily, Erin Cox-Holmes, Mike Ferguson, Paul Seebeck, Rachel Shussett, Bob Sloan, Eva Stimson.



# THE ASSEMBLY IN BRIEF

221st General Assembly (2014)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June 14-21, 2014



 @PresbyGA #ga221
 
 vimeo.com/pcusaoga
 

Spirit of GA pcusa.org/ga221

## 주로 "Yes"...로 응답한 총회

제 221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4)는 여러 번의 총회에 상정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논쟁 이슈들에 "Yes"라고 대답한 총회로 역사에 기억될 것 같다.

제 221차 미국 장로교 총회는 동성 결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서 비평화적 사업을 행하는 기업들로부터의 투자 철수, 신앙 고백서에 벨하 신앙 고백의 추가, 대회의 재 조직과 새로운 활력과 관계된 질문들에 목적있는 조치를 취했다.

654명의 총대들은 그들의 조치들을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와 방법들을 만드는데, 장로교 정치에서 개인적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깊이 분열된 교회에 가능한한 충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171개의 노회들을 방문하는 계획들을 고안해내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그들은 유화적인 스타일과 웃음을 잃지 않는 지도자를 선택했다.



Heath Rada receives his confirmation as Moderator - by Michael Whitman

북서부 캐롤라이나 노회의 장로인 Heath Rada가 첫 번째 무기명 투표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은퇴하여 노스 캐롤라이나의 Montreat에 살고 있는 Rada는 버지니아에 위치한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in Richmond의 전직 총장이었고, 미 적십자 리치몬드 지부의 이전 최고 경영자였다. 노련한 중재자인 Rada는 총회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중재자는 중요한 공통 분모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Rada와 함께 일할 부 총회장은 Larissa Kwong Abazia 목사이다. 그녀는 뉴욕 퀸즈에 위치한 Forest Hills 제일 장로교회—다 문화와 다 인종 교회—의 중국계 미국 목사이다. 그녀는 화해를 위한 Rada와 총회의 요청을 반영하면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관계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전체 교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세계의 미국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철수하자는 안전에 'Yes'

총대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서 비평화적인 일들에 참여하고 있다고 총회가 결의한 세계의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철수하도록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310-303; 51%-49%). 그 회사들은 Caterpillar Inc.와 Hewlett-Packard와 Motorola Solutions이다.

이와 유사한 헌의안이 제 220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2)에서는 333대 331로 부결되었었다. 투자를 통한 선교 책임 위원회 (MRTI)는 2004년 총회에 의해 조치가 내려진 후로 이 세 회사들과 기업 참여를 시도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총회는 이 투표가 이스라엘로부터 투자를 철수하기 위한 투표가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지 매우 논쟁적인 BDS (boycott, divestment, sanctions) 운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고, 전문에 다음과 같은 투자 철수 조치를 덧붙였다:

“미국 장로교는 오래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지녀왔다. 우리는 이 문제들의 복잡성과, 수십년 간 지속된 갈등과,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단체들의 정책과 관행에 의해 부과된 고통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정의와 화해를 열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역사적 그리고 현재적 고통에 우리가 공모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 동성 결혼에 'Yes': 목회적 역량과 새로운 정의

총회는 371대 238 (61%-39%)로 규례서 W-4.9000에 대한 "권위 해석"(AI)을 승인하여, 동성 결혼이 합법적인 시민 관할 지역들에서 그러한 결혼식을 집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목사의 재량에 맡기게 했다. 현재 19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 적용되고 있는 이 판결은 1991년 총회가 제정한 권위해석에 의해 장로교 목사들이 그러한 지역들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집례하지 못하게 했던 금지 조항을 무효케 한다. 이 권위 해석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총회는 또한 결혼에 대한 헌법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사이”로부터 “두 사람 사이,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로 바꾸자는 W-4.9001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는 429대 175 (71%-29%)였으며, 이것은 다음 1년 동안 비준을 받기 위해 171개의 노회들에 보내진다.



Jeff Bridgeman and Rebecca Tollefson, moderator and vice moderator of the Committee on Civil Union and Marriage Issues - by Danny Bolin

## 최종 결과

총회 동안 취해진 조치들은 2015년 총회 선교 예산에 295,119달러를 추가시켰고, 2016년 예산에는 68,418달러를 추가시켰다. 따라서, 총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각각 73,671,7444달러와, 78,226,389달러라는 개정 선교 예산안을 승인했다. 2016년 예산이 높은 것은 그 해에 인디애나의 퍼듀 대학에서 수천 명의 장로교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로교 청소년 트리엔니엄 (Presbyterian Youth Triennium)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총회 조치들은 2014년 상회비 예산에 14,800달러, 2015년에는 124,945달러, 그리고 2016년에는 61,165달러를 추가했다. 그 결과, 총회는 상회비 분담금을 다음 2년 동안 매년 5센트씩 증가시키기로--2015년에는 한 사람당 7.07불, 2016년에는 7.12불--결의했다.



Commissioners speak to various issues at the Assembly - by Michael Whitman

##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철수 문제를 '연구할 것'

총회는 5년 내에 화석 연료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철수할 것을 요청한 헌의안을 469대 110(81%-19%)의 표결을 통해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총회는 30년 동안 미국 장로를 대신하여 그러한 회사들에 참여해 온 (그 회사들의 기업 행동과 관련하여) 투자를 통한 선교 책임 위원회 (MRTI)에 이 안전을 회부했다. MRTI의 규정 하에서, 투자 철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업 참여의 다른 노력들이 실패한 후에 실행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 '한 아이를 교육시켜, 세상을 변화시켜라'

총회는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특히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다음 4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 10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장로교인들에게 요청했다.

세계 선교부와, 장로교 선교국의 공휴, 평화, 정의 사역부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이 사업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미네아폴리스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목사인 Tim Hart-Andersen은 시카고의 Fourth Presbyterian Church와 인디애나폴리스의 Second Presbyterian Church와 더불어 남부 수단에서 이루어질 이 교육 사업에 165만불을 약정했다고 그의 교회에 발표했다.

총회는 미국 장로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의 벽을 뛰어넘는 선교 활동들에 참여할 것을 격려하는 두 번째 장로교 선교국 사업인 "선교적 삶"(Living Missionally)을 승인했다.

그리고 총회는 "1001 새로운 예배 공동체"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축하했다. 이 사업이 2012년 총회에서 시작된 이후, 240개가 넘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들이 등록되었다. 총회는 노회들에게 교육 및 훈련 행사들을 통해 이 운동을 촉진시킬 것을 권장했고, 모든 노회들에게 다음 2년 동안 적어도 한 개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도록 요청했다.

## 확대된 피스메이킹 헌금

총회는 2016년 이후에 연례적인 피스메이킹 헌금에 글로벌 증거 (global witness)를 포함시키도록 재정비하자는 안건을 거수로 통과시켰다. 피스메이킹 헌금은 20년 전에 시작한 이후로 장로교 피스메이킹 프로그램을 위해 지정되어왔다.

재정비된 헌금에 세계 선교를 위한 노력을 포함시킴으로서—평화 및 글로벌 증거 헌금 (Peace and Global Witness Offering)으로 불릴 것이다—, 미국 장로교 특별 헌금 태스크 포스는 네 개의 특별 헌금—Peacemaking, Christmas Joy, One Great Hour of Sharing, and Pentecost—으로부터 대략 2배를 거두어 들이려는--2020년까지 2천만 불--교회의 목표에 더 큰 진전이 있기를 소망한다.



## (same-gender cont'd)

2010년 총회는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2년 동안 결혼 이슈들에 대해 연구하게 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조치들은 그 후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2012년 총회는 2년을 연장하여 범 교회적 연구를 하게 했었다.

총회는 이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는 양쪽 목사들의 양심을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두 가지 안건 모두에 보호적 언어를 포함시켰다. 제안된 개정안의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성령님에 대한 목사나 당회의 분별력과 일치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어지는 결혼식을 목사에게 집행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러한 결혼식을 위해 당회에게 교회 시설의 사용을 인가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벨하 신앙 고백에 'Yes'

총회는 벨하 신앙고백--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에 대한 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준 받기 위해 171개의 노회로 보내기로 결의했다. 투표 결과는 551대 87 (86%-14%)이었다.

정의와 화해와 일치를 다루는 벨하 신앙 고백은 이제 노회의 3분의 2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교단의 교리문에 들어가기 위해 2016년 총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010년 총회는 벨하 신앙고백을 525대 150으로 통과시켰지만, 노회들의 승인을 받기 위한 투표에서 여덟표가 모자라 (108-63) 부결되었었다.

## 새로운 대회 경계에 'Yes'

총회는 미국 장로교 대회의 갯수를 16개에서 10-12개 사이 (푸에르토 리코의 Sinodo Boriquen을 포함)로 줄이는 것을 449대 128 (78%-22%)로 통과시켰다. 어느 곳에 새로운 경계들을 그려야 할지, 그리고 각 대회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회들과 대회들을 구성하는 노회들에 달려있다.

이 추천 사항은 2010년부터 대회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루어 온 두 개의 중간 공의회 전권 위원회들 중 두 번째 전권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2012년 총회는 첫 번째 전권 위원회에 반응하여, 대회를 미국 장로교의 교회 단위로써 제거해 달라는 제안을 거부했다. 두 번째 전권 위원회는 대회를 "여덟 개 미만으로" 줄여 달라고 추천했다.

대회들과 노회들은 "목적과 파트너십과 컨텍스트와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감각에 기초하여"대회의 경계들을 다시 구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대회들은 교단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대회가 우리 중간 공의회 시스템 안에 이미 존재하는 창조성을 확인해 주는데 있어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도록 격려해 주는 상호 책임의 구조 안에서 더 적은 수의 대회를 구성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 총회 기관들의 리더들에 대해 'Yes'

총회는 미국 장로교의 내셔널 기관들 중 세 기관들을 이끌 장로교 지도자들의 선출을 확증했다:

- 린다 벨렌타인(Linda Valentine) 장로는 장로교 선교국의 총무로서 또 다시 4년 동안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이 그녀의 세 번째 임기로서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전에 시카고에서 기업 변호사로 일했던 그녀는 루이빌에 위치한 Highland Presbyterian Church의 성도이다.
- 톰 테일러 (Tom Taylor) 목사는 장로교 재단의 의장 및 CEO로서 또한 4년 동안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이 그의 두 번째 임기이다. 전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했던 테일러는 또한 장로교 선교국의 선교부 부총무 (deputy executive director)로 섬겼다.
- 미국 장로교의 목사 후보생인 프랭크 스펜서 (Frank Spencer) 장로는 연금국의 새 의장 및 CEO로 선출되었다. 그는 가장 최근까지 노스 캐롤라이나의 샬롯트에 위치한 Habitat for Humanity의 총무였다.



Linda Valentine, Executive Director of PMA - by Michael Whitman

## 피스메이킹을 위한 미국 장로교의 지속적 의지에 'Yes'

총회는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미국 장로교의 의지와 관련된 다섯 개의 "주장"을 노회들에 보내어 그들의 견해와 자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회 증언 정책 자문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 주장들은 2010년 총회에 의해 개시되었으며, 6년 동안 진행되는 범 교회적 평화 분별 과정의 일부이다.

이 주장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스메이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며, 세계 폭력에 그리스도인들이 공모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평화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재 천명하며, 매일의 삶과 공동체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에 교회가 비폭력적으로 반응할 것을 다짐한다.

다른 피스메이킹 이슈들과 관련하여, 총회는

-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무인 항공기의 표적 살인에 반대를 표명했고, 미 의회에 무인 항공기의 사용을 제한할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 미국 시민들이 쿠바에 여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모든 조항들을 제거해 달라고 미 정부에 촉구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 여행 및 관광을 통한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에 서명한 회사들의 상태를 계속 감시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를 인권 문제로 다루는 정책 개발을 요청했다.
- 세계 도처의 분쟁 지역들—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콩고 민주 공화국, 서부 사하라—을 언급했다.

## 총기 폭력 방지에 'Yes'

총기 폭력을 방지하자는 안건들이 제 221차 장로교 총회에 의해 압도적인 승인을 얻었다. 이 승인과 함께,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청함으로써 총기 폭력 문제를 다루기로 결의했다:

- 총기 폭력 경험자들을 위한 지지, 치유, 옹호 그룹들을 형성하기;
- 예측 가능한 총기 오용으로 인한 의료 및 보안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재정적 책임을 총기 제조 업체들 및 판매자들에게 면제해주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 총기 소지자들이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 전에 총을 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다른 법안들 및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라"에 대해 반대하기;
- 당회들과 미국 장로교 단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내와 모임 장소들을 "총기 없는 영역"으로 선포하도록 촉구하기;
-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 연령을 21세로 높이기;
- 반자동 무기들, 방탄복을 뚫는 권총 실탄, 그리고 큰 구경 소총을 금하는 법안을 지지하기;
- 탄약을 규제하는 연방 및 주 법안을 지지하며 옹호하기.

다른 사회 정의 이슈들에 대해, 총회는

- 과세의 정의 (justice in taxation)에 대한 원칙들과 추천들을 담고 있는 성명서를 425 대 170 (71%-29%)으로 승인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회 증언 정책 자문회의 연구 자료들로서, 미국에서 더 공정한 세금 제도를 추구하는 권장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조세 정의: 새로운 길드 시대에 대한 기독교 반응"
- 낙태에 대한 미국 장로교의 정책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헌의안을 465대 133 (78%-22%)으로 부결시켰다.

- 미국에서 더 효과적인 약물 정책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 2년간의 범 교회적 연구를 요청한 헌의안을 317-260 (55%-45%)으로 승인했다.
- 사형 제도에 대한 국가적 유예를 요청,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연구, "식량 주권"—"안전하고 영양이 있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음식과 식품 생산 자원들"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을 신장시키는 조치, 태아 및 출산 후의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확증, 더 관대한 출산 휴가 정책들에 대한 노회들과 교단 기관들의 채택, 그리고 "유권자를 억제하는 새로운 흐름에 반대하는 조치"에 대한 안건들을 동의안으로 승인했다.

## 공동의 선을 위해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총회는 "미국 장로교의 종교간 입장"이라고 명칭된 정책 성명서를 거수로 통과시켰다. 이 정책을 의하면 교단은 "모든 수준에서 다른 종교 전통들에 속한 단체들 및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는 대화와 상호 관계를 위한 기회들에 개방적이고, 또한 그러한 기회들을 추구할 것이다.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의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총회는 성경의 이스라엘 땅과 현대 이스라엘 국가 사이의 차이를 구별해 줄 자료들을 만들자는 헌의안을 506대 72 (88%-12%)로 부결시켰다.